

먼저 ‘월간 닭고기’ 14주년 창간기념호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월간 닭고기’는 질병대책, 사양관리, 유통문제, 국제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사육농가 등에게 배포하여 1995년 7,730억원에 불과하던 닭고기 생산액이 2007년 1조28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육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닭고기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며, ‘월간 닭고기’도 닭고기 산업 발전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닭고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며, 1년여 양계업무를 접해보면서 느꼈던 점을 정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자격이 아닌 일반인이 바라본 시각으로 솔회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 기술한 내용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닭고기 산업 발전 방향



1. 육계산업 진단

지금까지 육계산업은 과학이 바탕이 되어 종계 품종개량, 사양관리, 도축·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과정에서 계열업체들의 노력에 대해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육계산업은 종계 생산, 사양관리, 도축·가공 단계에서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돌출되어지곤 한다. 이러한 돌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육계산업이 발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각 단계별 돌출 문제들을 언급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김영만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2. 종계(육계) 사육단계

가. 종계장 난계대 질병

지금까지 육용종계 품종은 단기간에 출하할 수 있고, 사료효율이 좋은 품종으로 개량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종계농가 등에서는 소형닭을 생산할 수 있는 품종위주로 사육되고 있으며, 육계 사육농가의 사료효율도 최근 1.5kg 수준으로 좋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종계장의 난계대 질병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는 위의 품종개량에만 주력하고, 종계가 질병에 취약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종계농가의 사육시설이 열악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종계장의 난계대 질병이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종계장 시설 현대화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나. 종계농가와 계열업체간 갈등

종계농가는 전체 종계농가의 약 70%가 계열업체와 납품계약에 의거 종란을 납품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최근 병아리가격이 상승했음에도 계열업체와 납품계약에 의한 단가로 납품하게 되어 계열업체만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계열업체는 가격상승시 계약 수수

료외에 추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폭리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부화율 하락으로 오히려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계열업체와 종계농가와 의 의사소통 소홀에 따른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계열업체와 종계농가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정부의 간접지원이 필요하다.

3. 육계 생산단계

가. 사육시설

육계 사육농가의 사육기술은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육농가 대부분은 사육시설이 열악한 개방계사에서 육계를 사육하고 있어 육계 사육농가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무창계사 사육농가는 질병 및 온·습도 차단이 가능하여 생산성이 높아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육계 사육시설 현대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나. 병아리 생산이력제

육계 사육농가 및 계열업체는 종계장의 난계대 질병 상존에 따라 종계 생산성 및 육계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육계 사육농가는 육용병아리 이력추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육용병아리 이력추적제 도입은 계열업체 및 사육농가 등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없이 협의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다. 닭고기 생산 다양화

외국은 대형닭 위주의 생산(일본 2.7kg, 중국 2.5kg, 미국 2.1kg)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비특성 및 도계장 기계화를 감안(도계장 신축비 절감)하여 소형닭 위주의 생산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수입 닭고기와의 경쟁 및 닭고기 수출을 위해서는 대형닭 위주의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형닭 위주의 생산을 할 경우 가축비가 절감되어 수컷을 대형닭(2kg 이상)으로 생산시 생산비가 30% 수준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라. 사육농가와 계열업체간 갈등

계열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육계를 생산하고 있는 사육농가는 계열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계열업체는 사육농가의 사양관리 개선 및 품종개량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또한 계열업체와 사육농가간 수시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열업체 및 사육농가가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의 간접지원이 필요하다.

4. 육계 유통단계

가. 도계시설

일부 도계장에서는 도계 후 냉각방식을 물에 의한 냉각방식(Water-Chilling)으로 냉각함에 따라 세균성 바이러스 확산 및 닭고기 품질저하 우려가 있으며, 대부분의 도계장이 부분육 가공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물에 의한 냉각방식 채용으로 도계시 상당량의 물이 필요하나, 일부 도계장은 물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계 후 Water-Chilling 냉각방식을 Air-Chilling 냉각방식으로 전환 및 향후 대형닭 위주 생산을 위한 부분육 가공시설 보완 등이 필요하다.

나. 닭고기 유통

현재 20개 이상의 육계 계열업체가 사육농가와 계약에 의해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계열업체는 생산된 닭고기의 유통·판매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계열업체는 닭고기 특성상 상온에서 하루만 지나도 부패하는 특성 및 각

모건스탠리 보고서(2008. 5. 21)에 의하면 미국의 전체 육류소비 중 닭고기 소비량 비중이 2007년 34.7% 수준이나, 2017년에는 57.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백색 Wellbeing 육 선호성향 등으로 닭고기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비성향이 닭고기 소비 위주로 바뀔 것이므로 닭고기 산업의 발전전망은 무궁무진하다 할 것이다.

계열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해 닭고기 유통업자와의 거래시 D/C거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현재 100g 단위(호수) 거래를 중량단위 거래로 바꿔야 하며, 자사 브랜드 특성화(예 : 동충하초 먹인 닭 등) 홍보가 필요하다.

5. 결론

계열업체와 사육농가간 갈등요인이 있으나, 계열업체는 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사육농가는 계열업체의 회사 사정을 감안하여 의견을 존중하는 등 서로 노력하면 갈등이 해소되리라 믿고 있으며, 현재 육계 의무자조금 도입과 관련, 일부 갈등요인이 있으나 서로 양보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세계 곡물가 인상 및 제3세계 곡물수요 급증으로 인한 Agflation 가속화 등으로 사료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육계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나, 종계 생산성 및 육계 생산성 등 앞에서 기술한 문제점들이 정부 및 사육농가, 계열업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문제점들을 해결하면 닭고기 산업전망은 한층 밝아질 것이다.

모건스탠리 보고서(2008. 5. 21)에 의하면 미국의 전체 육류소비 중 닭고기 소비량 비중이 2007년 34.7% 수준이나, 2017년에는 57.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백색 Wellbeing 육 선호성향 등으로 닭고기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비성향이 닭고기 소비 위주로 바뀔 것이므로 닭고기 산업의 발전전망은 무궁무진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해결되어 닭고기 산업이 한우 및 양돈산업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할 날이 머지 않아 다가오리라 기대해 본다. <